

필리핀의 정치 위기와 여성 리더십:

아키노와 아로요의 비교*

김민정**

I. 들어가는 말

지난 20년간 필리핀은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중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는 암살당한 남편을 대신하여,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은 과거 대통령이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는 유독 가문의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 부인과 딸의 위치에서 남성을 대신하는 여성 정치인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오랜 독재 정치와 가문 남성의 암살 등으로 정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하며, 일시적으로나 이행기에만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리더십은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한 북유럽의 여성 리더십과 다른 것이며,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과도 무관하고 나아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Richter 1990-1991; Francine & Beckman, eds. 1995). 한편 필리핀의 두 여성 대통령은 모두, 피플파워(People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위기극복의 정치리더십: 동남아 4개국 정치지도자 비교연구”(KRF-2004-072-BS3037)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줄고를 읽고 도움말을 주신 여러 학술대회의 토론자분들과 학회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전임강사, minkim@kangwon.ac.kr

Power)라는 대규모 비폭력 대중 시위의 압력으로 전임자가 사임함으로써 대통령이 되었다. 서구의 역사경험 속에서 ‘자유주의’는 자의적인 국가권력을 법과 절차에 따라 대체함으로써 시작되고, ‘민주주의’는 시민정부와 보편선거, 선출을 통한 행정부와 사법부 구성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필리핀의 피플파워는 비자유주의의(illiberal) 방식으로 민주주의(democracy)를 추구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Linantud 2005).¹⁾

따라서 필리핀의 두 여성 대통령 사례를 통해 여성리더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작업과 관련된다. 하나는 두 여성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가문의 정치에 국한된 것인지 그리고 비전문적인 여성성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의 집권이 필리핀의 정치변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관심은 주로 후자에 국한된다. 즉, 여성성 이미지의 정치적 사용을 정치민주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리더십은 동시대의 민감하고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며, 성성을 둘러싼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주제로는 조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두 여성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사용된 여성성 이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여성 리더십은 (섹스로서) ‘여성의’ 리더십을 의미하지 않, 여성 개인이 사용하는 정치적 자원은 (사회가 여성에게 또는 남성에게 할당한 자질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즉 젠더로서) ‘여성적’일 수도 ‘남성적’일 수도 있다.²⁾ 남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여성적 자질

1) 필리핀은 학자에 따라 비자유 민주주의로도(서경교 2005, Linantud 2005), 약한 정도의 비자유 민주주의로도(Zakaria 1997: 각주4), 또는 비자유 민주주의 모델에 맞지 않는 것으로도(Ross 1996; Bauer 1997) 분류된다.

2) 여기서 섹스와 젠더는 조안 스킷이 인용했던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 즉 “의료의

은 리더십의 핵심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지만, 실상 모든 리더십은 개인의 계급이나 지역, 인종과 같은 다른 사회적 범주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특히 성 요인이 강조되면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요소들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여성 리더십의 경우 특히 조직 내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내용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더십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리더십은 ‘흔히’ 여성적 자질 (예를 들면 모성이나 도덕성, 희생, 봉사, 청렴함 등)이나 이와 관련된 관계, 역할 및 행동유형 (예를 들면 가족 및 친족관계, 네트워크 관계, 어머니 역할, 주부 역할, 비공식적 권력 행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조직의 운영에서 이러한 자질이나 역할은 제도의 합리적 실행을 가로막는 비판의 대상(지도력 결핍, 결단력 부족, 나약함, 감정적 등)이 된다. 이에 여성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은 정치 영역에서 작동하는 비정치적 요인들과 맞물려 복잡해진다.

이에 탐슨(Mark Thompson)은 아시아의 여성 리더십이 독재와 부패, 암살 등으로 얼룩진 반민주적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결집하는 데에 성공하는 맥락을 분석한다. 대의 민주주의 실행 경험이 짧은 아시아에서 여성 리더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도덕성과 청렴함, 대중의 고난에 대한 감정이입과 모성적 보살핌 등의 이미지와 함께, 정치경력 미비나 정치적 수완의 부재 등과 같은 여성 리더십의 특징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다양한 반독재 세력들의 거부감을 줄

효율성은 환자의 (젠더가 아니라) 섹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섹스 역할이 아니라) 젠더 역할이 좀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식의 구분이다 (스캇 2001: 210). 한편 리더십은 한 집단에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하는 통솔력이나 지도력을 뜻한다. 권력자원 또는 정치적 자원은 리더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 자질이나 소유 (경제적 능력, 교육, 가문, 직업, 종교, 성성, 정당소속감, 취미, 언어능력 등)를 뜻한다.

여준다. 즉 남성적인 정치 영역에서 위기가 극대화될 때, 사회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적 가치와 감수성을 담지한 리더십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정치 엘리트 가문의 여성들은 반대세력을 결집하는 상징이자 구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여성성으로 인해 또한 가문 정치의 한계 속에서 정권 이행후의 여성 리더십은 실패하게 된다 (Thompson 2002-2003).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아시아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일견, 피플파워를 통해 집권한 필리핀의 두 여성 대통령에게도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에도 ‘국가의 대모’로 존경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권이행 후 리더십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인가. 글로리아 아로요가 부통령으로서 승계한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과, 이후 전화도청스캔들로 인한 사임압력을 넘기고 마르코스 이후 가장 장기간 집권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필리핀의 두 여성 대통령 사례를 통해 아시아 여성 리더십을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기존의 설명 대신, 여성 리더십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친족 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II. 마르코스의 장기독재와 코라손 아키노

1. 마르코스의 장기집권과 2월 혁명

1972년 “신사회(New Society)” 건설을 기치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시작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6년 2월에 코라손 아

키노가 이끄는 “피플파워(People Power)”에 굴복하여 망명길에 올랐다.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통해 정당의 활동을 금하고 반정부인사들을 체포하여 기존의 제도권 정치층을 해체하였고, 측근 그룹을 형성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하였다. 대규모 외자에 의존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나 대중들을 매료시켰던 농지개혁과 농업 정책 등, 계엄령을 정당화할 경제정책도 1970년대 말에는 명백한 실패의 징후를 드러내었다.³⁾ 여기에는 필리핀이 1979년에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점도 크게 기여한다. 1982년 말 국가의 재정 상태는 기름값의 인상, 주요 수출작물의 국제가가 인하, 외채이자의 급증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Villegas 1986: 145).

이러한 때인 1983년 8월 21일, 미국에 망명 중이던 마르코스의 정적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Jr.)가 선거 출마를 위해 귀국하여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순간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르코스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운동권의 반정부시위가 가열되고 경제인과 군부 내 반정부 조직의 움직임도 가시화되면서, 필리핀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자본을 철회하고 각종 차관도입은 무산되었다.⁴⁾ 국내외의 비판과 압력으로 마르코스는 1981년 1월에 이미 계엄통치를 해제하였지만, 아키노의 암살로 인한 여파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르코스는 1987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서 1986년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였다.

3) 무역적자는 1978년 13억 7백만 달러에서 1981년 22억 8천만 달러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1970년 국민총생산의 2%에서 1982년에는 4%로, 외채규모는 1975년의 40억 달러에서 1980년에는 85억 5천4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빈부격차 역시 더 심해졌다. 1978년의 임금수준은 1972년보다 24%나 감소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1971년 38.7%에서 1975년 46.5%로 증가하였다 (정영국 2003: 58-59)

4) 1984년 말, 국민총생산은 5.3%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노동력의 36.5%에 달하였다 (Villegas 1986: 145).

마르크스의 계엄통치 기간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급과 사회세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계급적으로 반정부 세력을 양성해낸 시간이었다. 구 정치인물들, 민족주의 자본가들, 학생운동 인권피해자 가족 등을 위시하여, 재계와 전문직 엘리트층의 사람들은 정당과 구분되는 다양한 사회조직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위 ‘중산층’이 정치적 반대세력으로서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Lande 1986: 116-118). 계엄령 초기부터 교회는 정치범 인권보호를 위시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 성직자들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신인민군에 가입하였다. 아키노의 암살 이후엔 신추기경이 공개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하였다. 한편 전통적으로 양당제로 운영되던 정당은 계엄령 이후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화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학생운동권의 반정부 시위는 1970년대 중반에는 조직화되었고 필리핀 공산당과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1940년대 후크단(Hukbalahap)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산당 운동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인민군(New Peoples's Army),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필리핀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으로 조직 관계가 정비된다. 한편 미군의 전통을 따라 정치에 개입하지 않던 필리핀군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바뀌게 된 것 역시 마르크스 시기이다. 군개혁운동(Reform the Armed Forces Movement)을 주도하는 소장파들은 계엄령 해제 전후에 조직화를 시도한다 (Lande 1986).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르크스의 사임에 동조하는 실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1986년 2월 7일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고려하였으며, 아키노의 ‘미망인’ 코라손 아키노를 통해 연대할 수 있었다. 2월 선거의 공식결과는 마르크스의 승리였지만, 공산주의 세력을 제외하고 형성된 광범위한 반마르크스 세력은 교회의 조직과 방송매

체를 통해 대대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일으키면서 아키노의 승리를 주장하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군부 내의 반란으로, 2월 21일 국방부장관인 엔릴레(Enrile)와 라모스(Ramos) 장관이 마르코스의 하야를 촉구한 것이다. 이후 4일간 필리핀은 ‘위대한 민중의 힘’에 휩싸였고, 마르코스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고, 2월 25일 코라손 아키노는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된다. 그동안 코라손 아키노는 노란색과 투쟁(Laban)을 뜻하는 L자 손 모양을 사인으로 사용하면서 40만 명의 대중을 모았다. 집회는 미사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톨릭 종교의 상징과 해석이 동원되었다. 헌법에 의거한 방식이 아님에도 (즉 일종의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1986년 필리핀의 피플파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한 근대 세계정치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Thompson 1998).

마르코스 체제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필리핀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맞물린 것이지만, 코라손 아키노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성과 관련된 필리핀 정치문화에 대한 분석은 관심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선 코라손 아키노의 개인 배경과 리더십 이미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라손 아키노의 리더십 이미지

코라손 아키노(1933년 1월 25일생)는 1983년에 암살된 마르코스의 정적 베니그노 아키노의 부인이다. 그녀의 집안은 중부 루손 딸락(Tarlac) 지방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굵직한 지주와 사업가, 정치가를 배출한 코후앙코(Cojuangco) 가문이다.

필리핀의 친족정치 맥락에서 남성의 공식 정치활동을 보완하는 여성의 비공식 정치활동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보통 정치가의 부

인들은 별도로 조직을 꾸리거나, 사회복지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고, 선거 캠페인 시 대중들 앞에 나가 남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코라손은 전형적인 전업주부였고, 다른 정치가 부인에 비해 비공식적인 정치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베니그노의 경우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은 부인인 코라손이 아니라 어머니인 오로라(Aurora) 아키노였다. 단적으로 코라손은 1972년 남편이 투옥되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공식적인 연설을 하거나 대중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Roces 1998: 76). 그녀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유명 정치인인 남편이 피살되고 주변에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적극 추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코라손의 대통령 출마와 당선은 개인의 전문적 능력이나 정치적 의지보다는 필리핀 사회전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정치경험이 없는 ‘백지같은’ 인물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대의 상징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한 대중지는 코라손에게 정치 경력이 없다는 마르코스 측의 비난에 대해 코라손이 정치가문에 속해있다는 사실로써 반박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실과 정직”이라고 독자들을 설득한다 (*Mr & Ms*, Jan. 21, 1986). 즉 코라손의 무(無)경력은 마르코스의 장기독재와 부패 이미지, 남편을 암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코스 정권의 폭력성과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감으로 선택되는 모순은 다양한 연대세력이 이후 상호충돌할 우려를 반영한다. 하지만 코라손이 유력한 정치엘리트 가문출신이라는 사실은 무경험자라도 정치적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유명한 정치가문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코라손의 정치적 무경력을 보완하는 보다 중요한 특징이 존재한다. 독재자에게 남편을 잃은 ‘미망인’으로서 그동안 계엄령 하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니그노는 죽음을 무릅쓰고 독재에 항거한 ‘순교자’로 거듭 났고, 그의 동상은 스페인에 대항했던 술탄 카다랏(Sultan Kadarat)이나 가브리엘라 실랑(Gabriela Silang)과 함께 마카티(Makati)시의 아얌라(Ayala) 구역에 세워졌다. 베니그노가 순교자가 되면서 코라손에게는 아들 예수를 잃고 탄식하는 성모의 아픔이 투사되었고, 진정한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국민을 이끌어 줄 “국민의 어머니(Inang Bayan)”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신추기경은 1985년 9월부터 소위 “눈물을 흘리는 성모(Weeping Madonna)”상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성모의 기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교하였는데,⁵⁾ 12월초에 거행한 마지막 미사에는 150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이처럼 가톨릭의 성모숭배에 의존한 교회의 저항방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코라손을 “필리핀 성모(Filipina Mary)”로 보게 되었다 (Thompson 1998: 144-145).

개인적으로도 코라손은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결혼 후에는 파란만장한 남편의 정치활동을 내조하며 가족에게만 충실하였다. 코라손 스스로도 ‘어머니’ 이미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1988년 어머니날 메시지에서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대통령이지만, 한시도 어머니이기를 멈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인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하느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제 한 나라의 최고직에 오르니 필리핀이라는

5) 당시 대중집회의 중심지였던 에드사(EDSA) 거리에는 1989년에 “에드사 성당(Shrine of Our Lady of EDSA)”이 세워졌다. “Our Lady of EDSA”란 명명법은 당시 EDSA에서 성모가 현신한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건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당의 공식 명칭은 “평화를 위한 성모 마리아 성당(Shrine of Mary, Queen of Peace)”이다. 담당 수녀는 당시의 피플파워는 그 자체가 성모가 내리신 기적이라는 것에 동조한 만큼 이런 이름을 쓰게 되었으며, 대신 공식적으로 인정된 현신은 아니기에 공식 문서에서는 에드사 성당이란 명칭을 괄호 속에 넣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2005년 7월 12일 방문 인터뷰).

가족에 대해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든다”고 말하였다 (*Manila Bulletin* May 8, 1988a). 언론 역시 코라손의 대통령 역할과 실제의 어머니 역할을 연결하며 두 역할에 필요한 자질의 유사성을 지적하곤 하였다. 백화점 및 소매업자 회의소(Chamber of Department Stores & Retailers’s officers)가 코라손에게 “당신은, 가족의 기반이 되어주고 역경과 난관에 맞서서 가족을 하나로 단합시켜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전통적인 필리핀 어머니에 대한 최상의 모델입니다”라고 쓰인 어머니날 카드를 전달한 사실 등이 보도되었다 (*Manila Bulletin* May 8, 1988b).

어머니의 이미지로 리더십을 발휘한 코라손의 사례는 영부인의 역할을 강조한 이멜다의 이미지 연출과 대조된다. “부부독재 (conjugal dictatorship)”라고 불릴 만큼 공식적, 비공식적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이멜다는 대중들에게 잘 꾸민 아름다운 외모만을 보여 주었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의 이미지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⁶⁾ 또한 주택청장과 마닐라 시장이라는 공식 직위를 맡아 대대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영화제나 미인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미화작업과 필리핀의 대외 이미지 개선도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멜다는 코라손이 등장하자 “화장도 하지 않고 매니큐어도 칠하지 않는 여자”라고 비난하였으며(Roces 1998: 169), 망명에서 돌아와 공식 정치의 장에 복귀한 후에도 여전히 아키노에게 “못생겼다”는 험담을 퍼부었다 (*PDI* Jan. 20, 1996).

코라손에 대한 이멜다의 비난은 필리핀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적 힘으로 고양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데(김민

6) 물론 아내로서 코라손의 삶이 주목받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코라손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기보다는 험난한 남편의 정치활동을 맡없이 이해하고 내조하며 아이들을 사랑한, ‘모범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칭송받는다 (*Malaya* Jan. 25 1989).

정 2001), 다른 어떤 여성 정치인보다 달리 아키노는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코라손은 도덕성, 종교성, 청렴함, 평화주의의 이미지를 통해 반 마르코스 운동에 대중들을 끌어 모았다. 아름다움이나 성성이 배제된 어머니의 위치에서, 고난을 헤치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며 희생을 마다않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민주화와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기여

코라손 아키노는 스스로 자신이 주부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며, 자신의 역할은 필리핀을 민주주의로 돌려놓는 '이행기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였다. 집권초기 정치범을 석방하고, 새로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료와 정치인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은 무사히 끝났다. 1987년 1월 국민투표에 회부된 헌법초안은 75%의 지지로 통과되었고 1987년 5월 상하원 선거의 투표율도 높아서 새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기본점수를 넘어선 듯 보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마르코스 이전의 과두 정치엘리트 가문이 대거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키노가 공약으로 내 건 여러 개혁법안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시 코라손 정부가 직면한 과제로는 마르코스 독재 유산의 정리와 민주화 추진, 수출독점의 해체, 마르코스와 측근들의 재산환수, 외채상환 및 상환조건 조정, 경제회복, 농지개혁 등의 사회개혁을 들 수 있다 (박승우 2003: 92-93). 이중 앞의 네 가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뒤의 두 가지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토지개혁법(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은 1988년 6월에야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고 예산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인

하시엔다 루이시타(Hacienda Luisita)를 개혁대상에서 제외시켜 진보단체와 대중들을 실망시켰다. 경제회복에서는 특히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집권 초기 경제는 잠깐 회복세를 보였으나 1990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침체하였고 물가도 치솟았다.⁷⁾ 이러한 경제적 난국은 기본적으로 마르코스의 독재가 남긴 유산인, 과도한 외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기인한다.⁸⁾ 무엇보다도 코라손의 정치적 안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군부의 쿠데타였다. 반 마르코스 연대 세력이던 라우렐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아키노 군부 쿠데타는 집권 후 18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코라손은 군부 장악을 위하여 라모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군부의 위협이 줄어들던 집권 후기인 1991년에는 피나투보(Pinatubo) 화산의 폭발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키노는 선거절차를 되살렸고, 마르코스 정권의 부정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재선 불출마 선언도 지켰다. 아키노 정부의 개혁작업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아키노 정부를 통해 많은 진보적 시민운동가들이 제도정치외의 장으로 진입하였으며, 다양한 소수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정책적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1년 제정된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으로 이후 라모스 시기 지방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박승우 2003: 101-102).

7) GDP성장률은 1988년 6.8%, 1989년 6.2%에서 1991년 -1.6%, 1992년 0.3%로 급감하였으며, 물가는 1990년 13.2%에서 1991년 18.5%로 급증하였다 (NSCB 2002: 박승우 2003: 93에서 재인용).

8) 1986년 상환해야 할 외채는 모두 32억 달러로 이는 필리핀 전체 수출의 34%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후 외채가 다소 감소한 후에도 매년 정부예산의 약 40%가 채무상환에 동원되었다 (Steinberg 2000: 169; 박승우 2003: 94에서 재인용).

한편, 코라손은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여성정책을 직접 표방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인공피임을 반대하는 가족정책을 지지하는 등 보수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된 글로리아 아로요를 비롯한 여성 장차관들을 임용하였고 주변에도 여성 조언자들을 두었다. 하원의 여성비율도 1984년의 5.5%에서 1987년에는 9.4%로 약간 증가하였다 (COMELEC: Tancangco 1990: 341-2에서 재인용). 한편 과거 형식적 기구였던 국가여성역할위원회(NCRFW, National Council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는 실질적 기구로 변신하였다.⁹⁾ NCRFW는 필리핀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발전 계획 5개년안(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7-1992)”을 내놓았으며, 집권말기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금의 상당 부분을 여성 활동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획기적 법안인 “여성을 위한 발전과 국가건설법(Women in Development and Nation Building Act: RA 7192)”이 통과되었다 (De Dios 2001). 즉 코라손 아키노는 간접적으로 여성 정치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 수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코라손 아키노는 집권 이후에도 전문 정치인으로 변신하고자 하지 않았다.¹⁰⁾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 적이 없었으며,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를 지켰다. 연설에서는 자신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역할 수행자라기 보다는 신의 임무 수행자로 표현하는 편이었다.¹¹⁾ 역

9) NCRFW는 1975년 이멜다가 “UN이 정한 여성을 위한 10년 (UN International Decade of Women)”에 호응하기 위하여 창설한 조직이다.

10) 1996년 풀브라이트 수상식 연설에서 아키노는 “나는 만델라 같은 영웅이 아니다, 나의 비판세력들이 “저 여자는 단지 평범한 주부일 뿐”이라고 한 말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www.fulbrightalumni.org/olc/pub/FBA/fulbright_prize/aquino_address.html

11) 아키노는 2월 혁명 직후에 행한 “왜 내가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오늘날 자유를 찾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왜 나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설적이게도 이러한 비정치적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퇴임 후에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모스 대통령의 당선이나 제2의 피플파워를 통한 에스트라다의 실각, 이어진 글로리아 아로요의 당선, 선거조작 도청사건 등 일련의 정치 과정 속에서 아키노는 여전히 “어머니 이미지”로 대중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2004년 5월 선거 직후 한 중앙일간지 칼럼에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사부문의 효과적인 국정참여를 독려하고 국가의 난제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아키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사회에서 정부와 사회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코라손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견해가 실리기도 하였다 (*Today* May 16, 2004).

III. 에스트라다의 부정부패와 글로리아 아로요

1. 빈곤층을 위한 대통령과 피플파워 2 & 3

1998년 5월 에스트라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랍(Erap para sa Mahirap)”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하층과 도시 빈민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에스트라다의 이력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유한 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니며 대학 중퇴의 학력으로 대중 영화관에 뛰어들어 쌓은 인기를 바탕으로 산후안

단지 정치에 신념을 잃은 민중을 이끌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 나라는 것 밖에는...”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Villacorte 1989:viii).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에도 동남아에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는 인사들에게 “독재를 물리치거나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에는 어떠한 정식도 있을 수 없다. 단지 자신을 잊고 민중을 생각하라,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민중들이다.”라고 조언하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였다 (*Time* Aug. 23-30, 1999).

(San Juan)의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였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였기 때문이다. 총 득표율은 40%였는데, 특히 하층(E 계층)에서 47.7%를 또 유권자의 63%에 달하는 중하층(D 계층)에서 40% 가량을 득표하였다.¹²⁾ 가톨릭 교회는 노골적으로 에스트라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하층민들은 영화 속에서 지프니 운전수나 노조 지도자 역할을 맡아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에스트라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정치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닌 중산층 지식인 일부 그룹도 에스트라다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특히 필리핀 국립대학 출신의 좌파, 활동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초기 내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에스트라다의 친빈민 구호가 진보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하였다.¹³⁾ 즉 에스트라다의 당선은 영화배우로서의 대중적 인기에 의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키노 정부 이후 시도된 개혁 성과의 미흡함, 특히 전통적 정치 엘리트들이 복귀한 것에 대한 빈곤층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는 자신의 친구 기업가와 정치인들을 요직에 앉히고 사적인 분위기에서 정사를 논하였으며, 대대적으로 내세운 빈민 프로그램도 성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집권 1년 반만인 1999년 10월 9일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던 싱손(Singson) 주지사가 불법 도박 이익금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였다고 폭로하면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모든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2000년 1월 16일 다시 한번 대규모 대중시위가 에드사 거리에서 발생하였다. 피플파워 2로 불리는 이 시위는 신추기경과 아키

12) www.sws.org.ph/exitpsde.htm (Rivera 2001: 247-248에서 재인용). 여기서 사용된 ABCDE의 계층구분은 오늘날 필리핀의 마케팅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분류로, A는 상층, B는 중상층, C는 중간층, D는 중하층, E는 하층을 의미한다.

13) 일례로 당시 필리핀국립대학 총장이던 프란시스코 네멘조(Francisco Nemenzo)는 대표적인 에스트라다 지지자였다.

노 전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 부통령이 주도하였으며, 피플파워 1과 유사하게 가톨릭 교회, 학생, 사회운동단체, 마카티 재계그룹의 지지를 받았고, 군부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할 수 있었다. 1월 20일 오후 2시 에스트라다가 대통령직을 자진사퇴하면서, 1월 16일 화요일부터 4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최대 백만 명의 인파를 모았던 피플파워2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¹⁴⁾

에스트라다의 정치 위기는 그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이 전문 경영자 집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된다.¹⁵⁾ 에스트라다의 부정부패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서 폐소화와 주가가 급락한 것은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akati Business Club)으로 대변되는 재계 인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탄핵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¹⁶⁾ 경제정책에서 에스트라다의 무능력은 경제학 박사이자 전직 교수라는 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의 이력과 대비되어 후자에 대한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결국 에스트라다가 사퇴한지 일주일 후 아로요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한 달여 후 대법원은 에스트라다 측의 제소에 대해 아로요의 대통령 취임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에스트라다의 대통령 사임과 관련된

14) 피플파워 2와 3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민정(2005)를 참조할 것.

15) 에스트라다 집권 후인 1999년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1986년 이후 최하인 -3.3%를 기록하였다(Paderanga 2001: 182). 한편 1997년 이후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공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는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에스트라다의 임기 중인 1998년과 1999년 사이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4.7%로 공업 부문 수치인 2.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Paderanga 2001: 184; 김민정 2005: 37-38 에서 재인용).

16) 2000년도 필리핀의 폐소화와 주가의 변화는 금융계와 재계에서의 적신호가 대통령 탄핵 분위기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폐소화와 주가는 물론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의 정치위기로 인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2000년 1월 1달러당 40페소이던 환율과 2100 수준이던 필리핀 주가지수(Phisix)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에스트라다의 실각을 초래한 싱슨(Singson)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10월 9일에는 달러 당 49페소와 1,264로 급락한다(Asiaweek Oct. 27, 2000).

법적 과정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4월 25일 옴부즈맨 특별검사에 의해 국고 횡령 혐의로 에스트라다가 체포되자 이번에는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하층과 빈민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플파워(Poor People Power)” 또는 피플파워3, 에드사 III로 불리었다. 피플파워3의 발생으로 인해 피플파워2의 평가는 복잡해졌다. 특히 피플파워2에 대한 필리핀 국내와 국외 언론 보도의 논조는 상당히 다르다. 필리핀 국내 언론은 올바른 정부(good government)와 하나의 국민이 되기(nationhood)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지만, 서구 언론은 “나쁜 민족적 습관(bad national habit)”이라거나, “부자들의 피플파워(rich people’s power)”라고 비꼬는 태도를 취하였다 (Reid 2001: 778). 대통령직을 사퇴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는 피플파워2를 지원한 재계의 바람대로 경제를 부활시켜야 하는 책임과 함께, 피플파워3를 지지하는 중하층과 도시빈민층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2. 글로리아 아로요의 리더십 이미지

아키노에 이어 제2의 피플파워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글로리아 아로요(1957년 4월 5일생)는 1961-1965년 사이 대통령을 역임한 마카파갈(Macapagal)의 딸이며, 2004년 선거에서 재선된 현직 대통령이다. 글로리아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 학부시절 전 미대통령인 클링턴과 함께 학교를 다녔으며, 필리핀 국립대학 경제학 박사과 10년간 교수생활을 하였다. 1986년 아키노 정부 시절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차관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본격적인 정치 입문은 1992년 상원에 출마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상원에 재선

될 때에는 1,600만표를 얻어 필리핀 선거사상 최다득표를 기록하였고, 1998년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베네시아(Venecia)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1,300만에 가까운 표를 얻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¹⁷⁾ 에스트라다 정부에서는 부통령으로 사회복지부 장관직을 겸하였고, 2001년 피플과워2에 의해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이어 2004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아로요의 이력은 에스트라다와 모든 점에서 명백한 대조를 보인다. “에스트라다가 고교중퇴자에 여러 부인을 둔 거구의 남성이며 게으르고 실수투성이의 연설을 한다면, 아로요는 경제학 박사에게 남성편력이 없는 아주 작은 체구의 여성이며 부지런하고 항상 진지한 연설을 한다”는 식이다 (Sydney Morning Herald Dec. 21, 2000: Current Biography 2002, on line에서 재인용). 1998년 에스트라다와 다른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했을 때 언론들이 “여자를 밝히는 남자(babaero)”와 “여자(babae)”간의 선택이라며 희화화하자, 글로리아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느냐 (더 도덕적이냐) 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살려냈다 (PDI Nov. 5 2000).

한편 코라손과는 정치엘리트 가문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종교적이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공유한다. 그러나 남편의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고 경제학 박사이면서 전문 정치인의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글로리아 정치경력 시발이 되는 아키노 정부 입각도 글로리아 개인에 대한 아키노의 선호라기보다는 아버지인 마카파갈 대통령이 과거 반 마르코스 노선을 취했었기 때문이다 (Coronel 2003b). 가문, 학력, 경력, 무엇을 보더라도 글로리아의 이력은 대통령직 수행에 모자람이 없는 상황인데,

17) 1995년 상원의원 재선시 총 투표자수는 25,736,506명 (유권자수는 36,415,154명)으로 아로요의 득표율은 60%가 넘었다 (<http://cdp.binghamton.edu/era/elections/phi95par.html>). 1998년 부통령 당선시의 득표율은 46%정도인데, 이는 대통령 당선자인 에스트라다 (39.86%) 보다 3백만 정도 많은 표이다.

역설적이게도 글로리아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리고 수더분하고 친근한 여성 이미지를 연출하는 전략으로 선거전을 치러왔다. 1995년 상원 재선 시에는 외모가 여배우 노라 아노르(Nora Aunor)를 닮은 것에 착안하여, 국민배우 노라의 이미지를 빌려왔고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Tordesillas 2001).¹⁸⁾ 특히 피플파워3 이후에는 에스트라다에게 동조하는 국민들을 의식하여 “글로리아 언니(Ate Glo)”, “왕언니 글로리아(Big Sis Glo)”와 같은 호칭으로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Mangahas 2001). “세탁부 글로리아(Gloria Labandera)”와 같이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대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어머니(Inang Bayan)”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Velasquez 2002).

그러나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에는, 민다나오 반군들을 향해서 “몽개버리겠다(I will crush you)”거나 “이 총알 한방이면 넌 끝이야(Isang bala na lang kayo)”와 같은 서부극 대사를 덧씌운 동영상 텔레비전에 내보내거나, 각료들과 함께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지구를 지키는 “맨 인 블랙(MIB, Man in Black)” 사진을 내보내는 등, 남성 정치인 못지않은 배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곤 하였다 (Velasquez 2002). 또한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다이빙에서부터 윈드서핑, 래프팅, 등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사진과 기사를 내보내면서 활동성과 모험심을 드러내었다(*Today* May 16, 2002). 결과적으로 글로리아가 연출하는 상당히 다양한 리더십 이미지는 서로 불일치하여,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평을 듣

18) 노라는 팔등신의 늘씬한 젊은 미녀배우가 아니라 키가 작고 통통한 외모를 가진, 50대에 접어든 중년 여배우이다. 1967년에 10대 소녀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전문적이고 진지한 연기를 하는 경륜을 갖춘 필리핀의 국민배우이다. 모두 17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저명한 국내의 영화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다. 공식홈페이지는 www.nora-icon.com.

게 된다.

특히 언론들은 글로리아가 대중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malasakit)’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Coronel 2003a). 이 점에 있어서 글로리아는 코라손은 물론 전임자 에스트라다와도 반대편에 위치한다. 우선 글로리아는 피플파워2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피플파워1과는 달리 대중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글로리아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설만한 자신만의 특별한 이미지나 이력,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당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이었고, 에스트라다의 부도덕한 남성적 이미지(도박, 뇌물, 부패, 횡령 등)를 상쇄할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 여성이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신뢰감을 주고 있었다. 본인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인정했듯이, 아키노 전대통령과 신 추기경, 라모스 전대통령 등 피플파워1과 관련된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에스트라다의 대안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Arroyo 2001). 그래서 외신은 피플파워2를 “피플파워 스타일의 혁명(people power-style revolution)”라고 표현하며(*Time* June 13, 2005), 글로리아를 코라손과 아키노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피플파워1로 인한 “테자부 효과”라고 설명한다(*Newsweek* Jan. 29, 2001).

글로리아는 유명한 정치가문이자 최고의 학력에 전문 이력을 가진 정치인으로써 여성이라는 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는 여성 연예인의 이미지를 빌거나 언니라는 호칭을 내세워 대중적 호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막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는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자질을 내세울 수 없었다. 결국 “국민의 어머니”라는 모성의 이미지와 ‘MMB’과 같은 터프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식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도자 상으로서는 전임자인 에스트라다가 더 성공한 형국이 되었다.

3. 경제회복의 조짐과 낮은 지지율

집권 후 글로리아는 전임자 에스트라다를 추종하던 중하층과 도시빈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플파워2를 일으킨 시민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글로리아는 부패를 비판하였지만 본격적인 개혁을 지향한 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플파워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18시간 만에 진압되는 군부 내 폭동이 발생하는 등 군부의 충성심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피플파워2의 연대세력이던 교회와 군부, 시민사회 중 교회의 지지만으로 유지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2002년초 대통령궁은 제1차 국정연설(SONA, State of the Nation Address)의 공약 사항인 빈곤개선, 행정절차 개선, 농어촌 직업 창출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Jan. 14, 2002). 아로요의 집권 이후 필리핀 경제상황에 대한 재계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집권 1년 후인 2002년 3월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12개 주요 기업은 필리핀 경제전망을 낙관하였으며(*Financial Times* Mar. 18, 2002), 2003년 9월 한 국제투자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의 정치안정도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16개의 경제개발국가 중 9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나 터키보다 높은 순위이다 (*Financial Times* Sept. 5, 2003). 재정적자만 제외한다면 2001년도 이후 필리핀의 거시경제지수는 경제회복의 징조를 보여주며,¹⁹⁾ 2005년 1월이 되면 1996년 이후 가장 호전된 경제상황을 기록한다 (*AFX-Asia* Jan. 31, 2005). 하지만 자처하였던 경제대통령이라는 역할수행은 성공한 것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글로리

19) 필리핀 거시경제지표, 2001-2005, % (NSO, www.nso.gov.ph)

아의 비인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러 정황들은 글로리아가 거래에 능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배경을 설명해준다. 자신이 피임기구를 사용했다고 밝히면서도 가톨릭의 가족정책을 지지한다든가 (Sison 2003),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분쟁에 대한 고려인지 향후 이라크 내 해외취업 때문인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200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번복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Cororel 2003a). 여기에 더하여 가명계좌를 만들어서 부인의 선거후원금을 빼돌린 남편 마이크 아로요의 스캔들이나, 남편, 아들과 시동생이 도박업계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등 가족성원들의 부정은 글로리아의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선에서 아로요는 페르난도(Fernando Poe, Jr.)를 근소한 (3.48%) 차이로 누르고 39.99%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피플파워2 이후 3년간 대중적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어도 그럭저럭 임무 수행을 해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2위인 페르난도와의 근사한 표 차이로 인해 불안해보이던 승리는 결국 글로리아가 선거관리위원인 가르실야노(Virgilio Garcillano: 일명 “가르시[Garci]”)와 통화한 전화내용(일명 “Hello Garci” 테이프)이 공개되면서 빛을 잃게 된다.²⁰⁾ 2004년 선거직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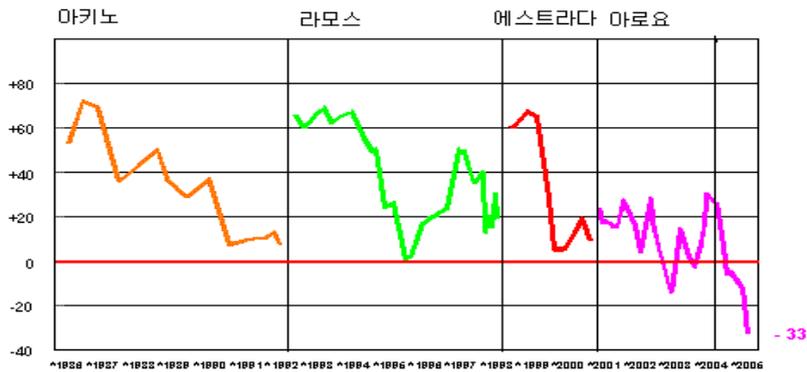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총생산 성장률	3.0	4.4	4.5	5.0	5.0
인플레이션 비율(소비자가가수)	6.1	3.1	3.1	4.5	4.5
재정수지/국내총생산	-4.0	-5.2	-4.6	-4.2	-4.2
수출 증가율	-16.2	10.0	1.4	8.0	8.0
수입 증가율	-4.5	6.2	6.3	10.0	10.0
부채상환비율	15.8	16.4	16.1	19.0	18.0

20) 글로리아의 수하에 있는 필리핀정부국(ISAFP, Intelligence Service of the Armed

에 달하던 실제만족율(net satisfaction rate)은 2005년 5월에는 -33%로, 마르코스 이후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SWS June 2, 2005). 피플파워2의 지원 세력이던 아키노는 사임을 촉구하였으나 군부와 가톨릭 교회는 사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여, 글로리아는 탄핵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리아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전임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2004년 선거 이후 급락하고 있다.

Forces of the Philippines)이 녹음한 3시간 분량의 도청내용은 실로 우연히 (술자리의 잡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전 국가정보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부국장인 사무엘 옹(Samuel Ong)에 의해 2005년 6월 10일 공개되었다. 대통령(으로 간주되는 여성)은 선거후 결과발표가 나기 전인 2004년 5월에서 6월까지 3주 동안 모두 15차례 가르시와 통화하였고, 둘은 민다나오 지역에서 득표수 조작(소위 dagdag-bawas: 일부에서 더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빼서 전체를 조정한다는 뜻) 문제를 의논하는 것으로 들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문제가 된 글로리아의 표현은 “내가 여전히 백만 표 이상 앞설 수 있을까(So will I still lead by more than one M., overall?)” 또는 “백만 표 이하여서는 안돼(It cannot be less than one M.)”와 같은 것이다. 2005년 6월 27일 글로리아는 결국 테이외의 목소리가 자신임을 시인하고 영어 담화문에서는 “판단력의 미비(lapse in judgement)”에 대해 “사과한다(I’m sorry)”고, 필리핀어 담화문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humihingi ako ng tawas sa inyo)”고 말하였다. 사건의 자세한 배경과 녹취전문, 추정되는 실제득표수, 기타 관련주제에 대한 논평은 PCIJ(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의 iReport 특집호 “Queens’ Gambits(2005)를 참조할 것.

<그림 1> 대통령에 대한 실제만족율(%)* 추이,
1986년 5월 - 2005년 5월



*실제만족율(net satisfaction rate) = 만족한다는 응답% -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출처> SWS (June 2, 2005)

정치인으로서 아로요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소수자 관련 법안(대표적인 것으로는 토착민권리법안)이나 여성관련 법안(반성희롱법 등)을 입법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에는 특별히 여성적 이슈를 문제화하지 않으며, 피임 문제 등에서는 보수적인 가톨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편이다. 나아가 민다나오 사태해결을 위해 미군을 다시 받아들이는 등 친부시(Bush) 성향을 보여 진보세력의 반감을 사고 있다. 전반적으로 글로리아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또는 거래 기술이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경제전문 대통령으로서 부가가치세를 10% 증가하는 방식으로 세수원을 확보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던 계획도 최근 발생한 녹취 스캔들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리더십에 크게 상처를 입은 현 상황에서 글로리아가 재정적자, 실업문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짐치기 힘들다.

IV. 필리핀의 친족정치와 여성 리더십

1. 아키노와 아로요 리더십 이미지 비교

이상에서 살펴 본, 아키노와 아로요가 대통령이 된 배경과 정치 리더십에 사용한 이미지, 정치수행의 평가내용 등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	아키노	아로요
정치이력	○ 전무	○ 기성 정치인 (아키노 정권시 데뷔)
가문	○ 중부 루손 딸락 지역의 정치엘리트 코후앙코 가문 출신 ○ 남편 베니그노 아키노는 상원 의원을 역임한 필리핀 민주주의의 순교자	○ 중부 루손 팜팡가 지역 출신 ○ 아버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은 필리핀의 제9대 대통령
집권 과정	○ 반마르코스 연대세력이 추대하여 피플파워1을 통해 집권	○ 2001: 피플파워2 이후 부통령으로 승계 ○ 2004: 선거로 선출
전임자와의 대조 이미지	○ “강한 남성, 독재, 부패”에 대비되는 “미망인, 순수, 희생, 도덕, 모성적 보호”: 성별이 뚜렷이 대조되는 이미지	○ “대학중퇴, 영화배우, 바람둥이, 부도덕”에 대비되는 “경제학박사, 교수, 엄격, 진지”: 성별이 뚜렷이 대조되지 않는 이미지
앞선 여성 정치인과의 관계	○ 이멜다와 반대 이미지 ○ 정치가의 아내이지만 경력없이 정계 진출	○ 아키노의 이미지 일부 계승 ○ 아키노와 달리 경력을 갖춘 전문 정치인
공통된 이미지	○ 모성/ 종교성/ 가족 중심성	

차별화되는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 이미지로 일관 : 국민의 어머니(Inang Bayan) 필리핀의 성모 (Filipina 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모순되는 다양한 이미지 : 국민배우 이미지(Nora Aunor) 글로리아 언니(Ate Glo) 국민의 어머니(Inang Bayan) 배짱(서부극 영웅, Man In Black)
정치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 ○ 개혁추진 미비 ○ 구 정치엘리트 복귀 ○ 여성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 효과 ○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정도의 경제회복 달성 ○ 빈곤층과 개혁세력의 반대에 직면 ○ 소수자나 여성관련 정책 부재 ○ 정치 스캔들 발생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후 모성이라는 비정치적 이미지로 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후 대중에게 공감하는 지도자 이미지 갖추지 못함

여기서는 두 여성 정치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 특히 모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모성은 출산과 양육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부여되는 속성으로 상대(자식)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여 ‘돌보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희생하는’ 자질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여성성이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양면(bilateral) 친족 구조와 상보적(complementary) 성 관념의 전통으로,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도 권위를 가지며 가족유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모중심적(matrifocal)으로 발전하고 모중심성은 가톨릭 종교 실행을 통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필리핀 가톨릭의 성모승배에서 어머니는 가족이나 마을공동체를 위한 종교의례의 주수행자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 모성과 어머니 역할은 종교성과 도덕성, 동정심과 책임감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Mülder 1997). 아키노는 이러한 모성적 자질이 정치적 자원으로 극대화된 경우이다. 아로요 역시 자신이 여성

이며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본격적인 정치이력은 자식들이 다 성장한 후에 시작되었으며,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2005년 신년 연하장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으로 손자를 안은 그림을 넣어 보냈다. 그러나 아로요는 다양한 다른 이미지 전략도 함께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모성은 고통을 공감하는 지도자 자질의 성적 상징으로 자리하지 못하였다.

친족구조와 종교문화에 기인한 어머니 역할 외에, 필리핀에서 모성이 정치자원화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기반은 권력과 위계에 대한 토착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파엘과 카넬이 제시하듯이, 필리핀 토착문화에서는 신과 인간, 부모와 자식, 고용주와 피고용인, 정치가와 추종자 사이와 같은 위계적 상호작용에서 ‘공감(sympathy)’이 중요하다 (Rafael 1988; Cannell 1999). 앤더슨(Anderson)이 지적하듯이 동남아 전통사회에서 권력은 추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하는 카리스마이자 영향력이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남성성(virility)과 관련된다 (Anderson, 1972). 그러나 남성성도 지도자가 대중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권력자원화될 수 없으며, 도를 넘은 통제되지 않은 남성성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두 여성 대통령의 전임자인 마르코스와 에스트라다는 남성적 힘을 통해 대중에게 ‘공감하는’ 태도로 인기를 모은 대표적인 필리핀 지도자들이다.²¹⁾ 결과적으로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힘의 통제 불능 상황은 여성성을 상징으로 내세운 대중반란의 형식으로 전복되었다.

이에 ‘순교자’의 아내로서 아키노의 모성 리더십은 통제되지 않은 남성성으로 초래된 악덕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감’의 지도력이 발휘되었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의 모성

21) 동남아 전통문화의 권력개념이 필리핀의 포퓰리즘(populism) 정치 문화와 남성 대통령의 마초(macho) 이미지와 관련된다는 점은 PCIJ가 2004년에 만든 흥미로운 비디오편 *Papogi* 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이미지는 전문 정치인으로서 채택한 다양한 이미지 전략 중 하나로 구사되었고, ‘공감’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상징이 아니었다. 즉 아키노와 아로요는 둘 다 모성과 같은 여성성을 중요한 정치 자원으로 여기고 리더십 이미지로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대통령직 수행에서 동일한 여성 이미지가 얼마나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 친족정치와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함의

필리핀 정치분석에 사용되는 “과두제(oligarchy)”나 “가산제(patrimonialism),” “가문정치(anarchy of families)”와 같은 용어는 국가 정치에서 주요 정치 엘리트 가문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로세스(Roces)는 필리핀 정치문화의 주요 특성이 정치권력을 친족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친족정치(kinship politics)”라고 표현한다 (Roces 1998: 2). 여기서 필리핀의 양면적 친족관계 인식과 성별 분업은 정치 영역에도 적용되어, 친족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은 가문정치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²²⁾ 친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근대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식민지배 이전 동남아의 성 평등적 토착문화가 근대정치구조 속에서 변용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토착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 진출이 가장 미흡한 근대 정치영역에서 여성적 가치와 자질은 긍정적인 권력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성의 실제적 영향력은 공식과 비공식이 겹치는 부분에서만 행사되는 방식

22) 양면성의 원리에 기반한 친족정치 속에서 여성은 매개적 역할이나 비공식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주역인 남성의 공식적 역할 못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인은 남편의 공식권력과 지위를 공유하고, 아들이나 딸 모두 부모의 권력과 지위를 계승할 수 있다 (Roces 1998: 9; 김민정 2002).

으로 변용되었다.

한편 필리핀에서 여성 정치인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가시적인 존재였다. 마르코스의 계엄령 시기를 제외한다면, 필리핀 상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독립 이후 줄곧 10% 이상이었으며, 하원의원이나, 주지사, 시장 등의 여성 비율은 다소 변동을 보이면서 10% 내외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수치는 물론 필리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²³⁾ <표1>과 <표2>와 같이 특히 1986년 아키노 정부 이후 여성 정치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특징적인 것은 상원의원의 여성비율은 독립 이후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주지사나 시장처럼 지역기반이 중요한 선출직의 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주부지사나 부시장 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필리핀 사회에서 작동하는 지역기반과 사회 신분적 위계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⁴⁾

<표 1> 필리핀 상/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 1946-2001,

단위: %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연도	1946	1947	1953	1955	1957	1961	1965	1967	1969	1971	1978 [*]	1984 [*]	1987 ^{**}	1992	2001
상원		12.5 (1/8)		12.5 (1/8)		12.5 (1/8)	12.5 (1/8)	25 (2/8)	0 (0/8)	12.5 (1/8)			8.7 (2/23)	16.7 (4/24)	12 (3/25) ^{***}
하원	12.5 (1/8)		1 (1/102)		1 (1/102)	1.9 (2/102)	5.8 (6/104)		2.8 (3/109)		5.5 (9/165)	5.5 (10/181)	9.4 (19/202)	10.5 (21/200)	16.1 (33/205)

* 1978년 수치는 계엄령하의 과도국회 선거, 1984년 수치는 계엄령 해제 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23) 한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2.5%(1971년), 8.2%(1973년), 0.6%(1978년), 3.3%(1981년), 2.9%(1985년), 2.0%(1988년), 1.0%(1992년), 3.0%(1996년), 5.9%(2000년), 13.0%(2004년)이며,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0.9%(1991년), 2.2%(1995년), 2.3%(1998년), 3.4%(2002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24) 한편 2002년 12월 현재, 공무원 중 차관이하 부서장 이상의 상위직에서는 34.8%가, 중간직에서는 71.9%가, 대졸 이하의 하위직에서는 34.6%가 여성이다 (NCRFW 홈페이지, www.ncrfw.gov.ph/insidepages/inforesource/ff_w_politics.htm).

** 1987년에는 하원선거가 1988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 상원 중 12명(2명 여성)은 1998년 선출, 13명(1명 여성)은 2001년 선출

출처: COMELEC; 1946-1988 수치는 Tancangco (1990: 341-2)에서 재인용, 1992 수치는 Roces (1998: 92)에서 재인용, 2001 수치는 NSCB 홈페이지 (www.nscb.gov.ph/stats/gender/statwatch03March05.asp).

<표 2> 필리핀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 1988-2001,

단위: %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주지사	부주지사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1988	5.5 (4/73)	12.3 (9/73)	7.5(118/1578)	6.5(102/1578)
1992	9.6 (7/73)	6.9 (5/73)	7.4 (119/1602)	8.9(141/1580)
2001	19.5 (15/77)	13.0 (10/77)	15.6 (241/1542)	12.4 (192/1548)

출처: COMELEC; 1988 수치는 Tancangco (1990: 341-2)에서 재인용, 1992 수치는 Roces (1998: 92)에서 재인용, 2001 수치는 NSCB 홈페이지(www.nscb.gov.ph/stats/gender/statwatch03March05.asp)

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타팔레스(Tapales) 역시 정치인 가문에서 여성의 후원활동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여성의 투표율은 항상 남성보다 높았으며, 선출직은 아니지만 선임직 공무원에서의 여성 비율도 과거부터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은 비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과 사의 영역이 흐려지는 “회색 지대(grey area)”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히 참여하여 왔다고 해석한다 (Tapales 1994).

즉 필리핀에서 친족정치가 두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현상은 단순히 부정적인 전근대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성평등적 토착문화가 변용된 복잡한 정치현실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필리핀 정치에서 선출직의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여성 대통령의 출현은 여성의 실제적인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V. 맺는 말

아키노와 아로요 두 여성 대통령의 등장은 일견,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 엘리트 집단이 꺼내든 교육지책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사례는 서로 상당히 다르며, 소위 아시아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일반론과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 즉 두 대통령의 사례는 위기극복의 여성리더십이라는 일반론의 증거로서 보다는 아시아 내부의 독특한 역사적 차원이 반영된 정치문화에서의 젠더 분석 사례로 다뤄질 때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성 리더십이 사용된 경우라면 해당 여성 지도자는 위기극복 이후 제거되거나 영향력을 상실해야 하지만, 아키노는 집권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아키노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되는 정치위기 때문이므로 일반론에 부합하는 사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로요의 정치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의 정치위기는 마르코스 이후 만성화되면서 리더십의 성적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전임 대통령으로서 아키노의 영향력과 개입은 라모스와 다른 성격의 활동이라고 분류하기 힘들다. 즉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아키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기극복의 여성리더십의 유형으로 제한하여 분석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을 남기게 된다.

한편, 서구의 선진적 여성 리더십 유형에 부합하는 전문적 이력과 경험을 가진 아로요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피플파워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위기극복의 여성 리더십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우선 아로요는 아키노와 달리 여성성을 내세워 대중을 동원해 낸 위기의 여성리더십이라기 보다는 기존 정치핵심세력, 즉 아키노와 라모스, 교회와 군부의 합의로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키노와 달리 아로요가 모성을 동원한 공감 정치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리더십의 일반론에 해당하지만 실패한 경우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아로요는 선거를 통해 재당선되었고 유래없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치스캔들이 경제적 파탄이나 사회적 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피플파워 3의 발생 당시와 이후의 지지율 조사결과는 (SWS Sep. 10 & Dec. 8, 2005), 아로요의 정치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필리핀의 두 여성 대통령의 사례는 위기극복을 위한 아시아 여성 리더십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필리핀 친족정치의 특수한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성은 분명 중요한 변수이지만, 필리핀의 친족 정치에서 성은 지역이나 계급보다 덜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은 성 평등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친족정치의 계급성이나 연고주의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주목해야하는 현상은 필리핀 친족정치 속에서 여성 참여의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과 자유주의적 민주화, 여성의 공식정치 참여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플파워와 같은 비자유주의적 절차를 통한 정치변화라고 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여성대통령의 연이은 출현으로 정치위기의 상황이 과대평가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두 여성 대통령의 리더십을 여성의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힘든 '아시아식' 여성 리더십이라고 일반화하거나 친족정치의 '전근대적' 측면이라고 치부하기 힘든 또 다른 맥락은 필리핀 여성의 일반적인 정치참여 현상이다. 필리핀 여성의 정치참여는 독립 이후 줄곧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 참여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두 여성 대통

령의 사례는 소위 아시아 여성리더십이라는 일반적 도식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며, 필리핀 친족정치 속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공식적이고 근대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변화의 국면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필리핀, 코라손 아키노, 글로리아 아로요, 여성리더십, 피플파워, 친족정치, 성적 이미지, 권력자원화

참고문헌

- 김민정. 2001. “‘아름다움’과 ‘도덕성’: 필리핀 사회에서의 여성성과 권력.” 『동남아시아연구』 11, 2: 91-118.
-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의 양변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 2: 3-36.
- 김민정편. 2005. “필리핀의 ‘피플파워’와 중산층: ‘변화없는’ 사회의 역동성”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서울: 폴리테이아.
- 박승우. 2003. “필리핀의 발전전략과 국가와 사회간 관계의 재평가.” 『동남아시아연구』 13, 2: 69-111.
- 서경교. 2005. “필리핀의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을 통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5, 1: 1-39.
- 스캇, 조안. 배은경역. 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고찰.” 『여성과 사회』 13: 210-249.
- 정영국. 2003. “필리핀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와 붕괴.”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정치과정』. 서울: 백산서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년도.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의회 선거

총람』(글자크기 수정요, 네모는 도서표시 꺾쇠모양으로 바뀌는 것이겠지요?)

- Anderson, Benedict. 1972. "The Idea of Power in Javanese Culture." In C. Holt (ed.). *Culture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Arroyo, Gloria. 2001. "Inauguration Speech of President Gloria Macapagal-Arroyo." January 20, 2001.
- Bauer, Joanne R. 1997. "Book Review: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2): 445-6.
- De Dios, Aurora Javate. 2001. "NCRFW and NGOs: an Enduring Partnership." Paper read during the Policy Dialogue on Gender Equality organized by the Gender Equality Bureau, Cabinet Office and the Gender Equality Division, Tokyo, Japan. Nov. 17.
- Cannell, Fenella. 1999. *Power and Intimacy in the Christian Philippin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cien, D'Amico and Peter R. Beckman, eds. 1995. *Women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Bergin & Garvey.
- Lande Carl H. 1986. "The Political Crisis." In John Bresnan (ed.). *Crisis in the Philippin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antud, John L. 2005. "The 2004 Philippine Elections: Political Change in an Illiberal Democra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1): 80-101.

- McCoy, Alfred. 1994. "An Anarchy of Families: The Historiography of State and Family in the Philippines." In A. McCoy (ed.). *An Anarchy of Families: State and Family in the Philippines*. Q.C.: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Mülder, Niels. 1997. *Inside Philippine Society: Interpretations of Everyday Life*. Q.C.: New Day.
- Paderanga, Cayetano W., Jr., Atienza, C., Co, F., and F.B. Villarante. 2001. "The Erap Economy." In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Rafael, Vicente. L. 1988. *Contracting Colonialism: Translation and Christian Conversion in Tagalog Society under Early Spanish Rule*.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Patronage, Pornography, and Youth: Ideology and Spectatorship during the Early Marcos Years." In Rafael. *White Love and Other Events in Filipino History*. Q.C.: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Reid, Ben. 2001. "The Philippine Democratic Uprising and the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EDSA II." *Third World Quarterly* 22(5): 777-793.
- Richter, Linda K. 1990-1991. "Exploring Theories of Female Leadership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63(4) (Winter 1990-1991): 524-540.
- Roces, Mina. 1998. *Women, Power, and Kinship Politics: Female Power in Post-War Philippines*. London: Praeger.

- Ross, Marlay. 1996. "Book Review: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3): 666-7.
- Steinberg, David Joel. 2000. *The Philippines: A Singular and a Plural Place*. 4th ed. Boulder: Westview Press.
- Tancangco, Luzviminda G. 1990. "Wome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Philippines."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4): 323-364.
- Tapales, Proserpina D. 1994. "Politics for Non-Widows: Increas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hilippines." *Solidarity* 143-144: 55-60.
- Thompson, Mark. 1998. *The Anti-Marcos Struggle: Personalistic Rule and Transition in the Philippines*. Q.C.: New Day.
- _____. 2002-2003. "Female Leadership of Democratic Translations in Asia." *Pacific Affairs* 75(4) (Winter 2002-2003): 535-555.
- Vellegas, Bernardo. 1986. "The Economic Crisis." In John Bresnan (ed.). *Crisis in the Philippin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illacorte, Rolando E. 1989. *The Real Hero of EDSA*. Q.C.: Berligui Typographics Cor.
- Wolters, Oliver. 1982.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Zakaria, Fareed.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22-43.
- _____.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Y.: W.W. Norton & Company, Inc.

* PCIJ (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www.pcij.org)

Coronel, Sheila S. 2003a. "The Problem with Gloria." PCIJ 9, 2
(April-June 2003). online.

Coronel, Sheila S. 2003b. "Who Wants to be a President?" PCIJ
9, 4 (Oct.-Dec. 2003).

Mangahas, Malou C. 2001. "The Transactional President." PCIJ 7,
2 (April-June 2001).

Mata, Elvira. 2003. "Meteor Mutiny". PCIJ 9, 3 (July-Sept. 2003).

McCoy, Alfred. 2003. "The Soldier as Messiah: The Myth of
Gringo Honasan". PCIJ 9, 3 (July-Sept. 2003).

Rimban, Luz. 2001. "The Third Party." PCIJ 7, 2 (April-June 2001).

Sison, Marites N. 2003. "Arroyo Used Pills, but is against Birth
Control." PCIJ 12-13 March.

Tordesillas, Ellen. 2001. "The President's Image-Maker." PCIJ 7,
3 (July-Sept. 2001).

Velasquez, Tony. 2002. "Picture Imperfect." PCIJ 8, 4 (Oct.-Dec.
2002).

* PCIJ 비디오 자료

Papogi: The Imaging of Philippine Presidents (April 2004). 80분.

* 신문 및 잡지

AFX-Asia Jan. 31, 2005. "Roundup-Philippine Economy Grows
6.1 pct in 2004 Despite Slowdown in Q4" by Erik de la

Cruz and Cecille Yap.

Asiaweek Oct. 27, 2000. "Unbowed under Fire" by Sangwon Suh and Antonio Lopez.

Financial Times Jan. 14, 2002. "Malacanang Reels From Poll Findings" by Carlito Pablo.

Financial Times Mar. 18, 2002. "Business Bullish RP Economy to Improve" by Cecille E. Yap.

Financial Times Sept. 5, 2003. "Survey by Lehman Brothers, Eurasia Group Shows Philippines Remains Stable" by Cynthia D. Balana.

Mr. & Ms. Jan. 21, 1986. "No Experience!" by Tito Guingona.

Manila Bulletin. May 8, 1988a. "Mother's Day Message" by President Aquino.

Manila Bulletin. May 8, 1988b. "Cory: A Mother at the Palace" by Deedee M. Siytangco.

Malaya. Jan. 25, 1989. "Cory and Nonoy: an Exemplary Union" by Rowena B. De La Rosa.

Newsweek. May 25, 2003. "Newsweek Interview: Gloria Macapagal Arroyo."

Newsweek. Jan. 29, 2001. "People Power II" by Brook Larmer et al.

PDI(Philippine Daily Inquirer). Jan. 20, 1996. "Word War of Widows Turns Nasty."

PDI(Philippine Daily Inquirer). Nov. 5, 2000. "Woman on the Verge" by Karla Delgado-Yulo.

Sydney Morning Herald Dec. 21, 2000.

Time. Aug. 23-30 1999 "The Political Widow and Former

Housewife Led a Revolution that Restored Power to the People in the Philippines and Inspired Millions across Asia" by Sandra Burton.

Time. June 13, 2005. "A Matter of Trust" by Anthony Spaeth.

Today. May 16, 2002. "After Scuba Diving She'll Climb Mountain" by Mia Gonzalez.

Today. May 16, 2004. "A Bigger National Role for Cory Aquino" by Frank Wenceslao.

* SWS (Social Weather Station, www.sws.org.ph)

SWS. June 2, 2005. "May 2005 Social Weather Survey: Net Satisfaction with GMA Falls to -33."

SWS. Sept. 10, 2005. "August 26-September 5, 2005 Social Weather Survey: 79% Pro-Impeachment, 64% Pro-Resignation, 51% Pro-People Power If GMA Not Impeached."

SWS. Dec. 8, 2005. "Fourth Quarter 2005 Weather Survey: GMA's Net Satisfaction Rating Falls to -30."

* 기관, 통계, 사전류, online

NCRFW(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on-line (www.ncrfw.gov.ph).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 각년호. Yearbook과 on-line (www.nso.gov.ph).

NSCB(National Statistics Coordination Board). 2002.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Current Biography International Yearbook 2002. "Macapagal-Arroyo,

212 동남아시아연구 16권 2호

Gloria". on-line (www.hwwilson.com/print/cbintl_arroyo_biography.htm).

Abstract

Political Crisis and Female Leadership in the Philippines:

A comparison of the cases of Aquino and Arroyo

Kim, Min-Jung

This article compares the leadership images of two female presidents in the Philippines, namely Corazon Aquino and Gloria Arroyo, and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female leadership in terms of the changes which have taken place in Filipino society and politics.

Existing political studies on Asian female leadership have tended to view such leadership as an element of pre-modern hereditary politics, as a temporary phenomenon designed to overcome a political crisis, or as a transitional phase towards democracy. Therefore, they conclude that female leadership necessarily fails to continue after a transfer of power.

Both Aquino and Arroyo share the commonality of having come to power on the back of the so-called 'halo effect' that comes from having a well-known politician as a husband or father, and of the non-violent mass movement known as 'People Power' which has emerged during political crises. However, while Aquino was a housewife with little experience in the political sphere, Arroyo was

already an experienced politician. Moreover, although Aquino cultivated the image of a 'Filipina Mary', Arroyo has strategically borrowed various cross-sexual images. An analysis of the female leadership images employed by these two presidents would seem to strengthen the need to caution against the universalization of female leadership as an 'exceptional' phenomenon.

First of all, the existence of a bilateral kinship structure and complementary gender relations rooted in the Filipino indigenous culture help to explain women's central role in Filipino kinship politics. Cultivating a mother or religious image can be a very effective means of exhibiting a sense of 'empathy' for one's followers, an element which is widely regard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of all leadership characters. Moreover, women already play a visible role in Filipino politics, especially in the Senate, and the ratio of women who vote in elections has surpassed that of men's since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Furthermore,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aspects of politics has been on the rise since the onset of the Aquino government in the late 1980's

Therefore, while this study of two female Filipino presidents reveals that kinship politics can be maintained under female leadership, it also implies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Furthermore, subsequent studies on female leadership will need to avoid universalizing gender images by probing into the specific contexts of each of these varied images.

Key words : Philippines, political culture, Corazon Aquino, Gloria Arroyo, female leadership, People Power, kinship politics, gender images, political/power resources